

## 英國 패션의 原動力에 關한 研究 II<sup>+</sup>

- 후세인 살라얀을 中心으로 -

裴 水 晶

全南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助教授

## A Study of the Contributors to the British Fashion II<sup>+</sup>

- Focusing on Hussein Chalayan -

Soo Jeong Bae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how to find the way of activating Korean fashion industry, by reviewing the accomplishments of British young designers, Hussein Chalayan, who are contributors to the present peak activities of British fashion.

Some results come over this depressive state of Korean fashion might be proposed. Firstly,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direct the Korean fashion associated group to make the unified and effective results in an organized way. Secondly, Korean fashion industries and university-level fashion school should have more intimate relationship and be closely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Also the fashion school should watch their curriculum. and change it gradually to the up-to-date one. Thirdly, the Korean new generation designers should do effort to have the highest tailoring technique and artistic good sense. Finally, the designer should have broad range of knowledge for their design.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university-level fashion schools, fashion industries and fashion designers should be positively changed and cooperated to do the best and activate Korean fashion.

### I. 서론

오늘날 세계의 패션산업은 젊은 신세대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파리 중심에서 런던 중심으로 그 판도가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초반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한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피어스 피운다(Pearce Fionda) 등이 런던 및 해외의 패션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1995년 영국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가 파리의 지방시(maison de Givenchy) 수석 디자

+ 이 논문은 1999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이nerg가 되었고 1996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로 옮기면서 알렉산더 맥퀸이 지방시로 입성하였으며, 후세인 살라얀이 미국에 근거한 TSE New York의 컨설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영국 디자이너들의 활동은 전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의 패션이 전 세계의 패션 하우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배출한 배경은 무엇일까? 영국패션의 현황과 구조 및 패션교육,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 등을 다방면에서 연구, 분석해 본다면 침체해 있는 우리의 패션산업을 다시 살아나게 할 해결책을 찾게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선행연구인 '英國 패션의 原動力에 關한 研究 I'<sup>2)</sup>의 제 2보로써 앞의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영국패션의 특징(구조와 패션교육)과 최첨단 디자이너 중 한 명인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을 실례로써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1보와 같은데, 영국패션의 원동력인 젊은 신세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과 이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패션산업의 특성 구조와 패션교육을 살펴봄으로써 영국 패션산업이 불황을 타개하고 일어섰던 것처럼 이 결과를 한국의 패션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패션산업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후세인 살라얀은 런던의 패션 철학자, 미래주의 디자이너 혹은 패션계의 모더니스트이자 실험가로 불린다. 알렉산더 맥퀸과 마찬가지로 살라얀은 연구의 대상이 되에는 너무 젊기 때문에 앞으로의 패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소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미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그 능력을 검증 받은 디자이너이므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영국패션의 구조와 패션교육에 대해 살펴 본 다음,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을 각 컬렉션 분석 후 실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작품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각종 컬렉션 비디오, 패션 잡지, 인터넷 사이트, 일반 패션서적과 관계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파악된 특징들을 요약 정리하여 한국 패션산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결론 및 제안을 도출하였다.

## II. 영국패션의 특징

### 1. 영국패션의 이중구조

영국의 패션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통(classic)과 현대(modernity) 혹은 전통과 아방가르드(avant-garde)의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스타일을 영국의 스타일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고 극단적인 다양성이 영국다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점은 패션전문가들에 의해 '영국패션다움'으로 평가되는 점으로써, 이 특이한 영국패션의 이중구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영국패션의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영국패션이 이중구조를 갖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라고 분석된다. 첫째는 지리·기후적 여건에 의한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적 특징은 상당부분 지리·기후적 여건에 의해 좌우된다.<sup>3)</sup> 영국은 북위 50도 이북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특히 겨울은 습하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비 또는 눈이 수시로 내리는 번덕스러운 날씨이다. 이 때문에 영국패션 시장에서는 비옷계열의 판매고가 전체 패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0월부터 시작되는 황량한 영국의 겨울은 양털의 생산을 촉진시켰고 결국 영국 모직물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급스럽게 잘 직조된 양질의 모직물은 수 세기동안 내려온 영국의 전통적인 테일러링 기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이것은 영국패션이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것과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둘째는 사회·문화적인 여건에 의한 것으로서 지리·기후적 여건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예외가 많은 국가이다. 일찍이 16세기에 타 국가의 정벌을 시작하여 수세기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18세기에는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또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노동자 혁명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왕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의 산업혁명 국가이면서도 금융과 산업의 합병을 경험한 선진국 중의 한 국가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sup>4)</sup>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화의 장점과 더불어 그 폐해가 급속히 부상하였다. 그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파괴로써, 산업화는 전파되는 곳마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파괴하였다. 19세기말부터 절저히 도시화 되어온 영국은 그때까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환경을 보존하는데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 노력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건축물과 공예품, 의상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특히 과거의 의상과 그 부속품들은 현대 영국의 패션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5)</sup> 특히 영국 디자이너들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보헤미안 스타일과 낭만적인 이브닝 웨어 영역에서는 역사적인 정신이 풍부하게 스며들어 있는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영국인들이 보존해온 전통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87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유럽대륙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가자 영국은 더 이상 세계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로운 곳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현재가 불안정 할 때 과거는 확실한 은신처의 역할을 한다. 결국 영국이 찾은 정체성은 그들의

역사와 복식에서였다.<sup>6)</sup> 이와 더불어 산업화에 의한 균질화에 반발하는 경향 또한 나타났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어디에서든 같은 상품, 같은 의복을 착용하게되자 자신만의 독자적인 것을 갖고자하는 욕망과 함께 기계생산에 의한 상품이 아닌 수공예적인 상품을 생산하자는 움직임(Arts and Crafts Movement)<sup>7)</sup>이 생겨났다.

미술공예운동은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코르셋을 제거하여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프에 의해 아름다운 실루엣을 형성하는 개혁의상을 착용하자는 심미주의운동(Aesthetic Movement)<sup>8)</sup>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술공예운동의 근원지인 영국에서 이 경향은 매우 현저하여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심미적인(당시로서는 현대적인) 영국의 패션이 이미 19세기 중반에 등장하였다. 이 의상은 당시 런던의 가장 큰 백화점인 리버티와 해로드에서 판매되었고 복식사적으로 보아 폴 부아레(Paul Poiret)가 현대적인 의미의 의상을 발표한 것보다 수십년 앞선 것이었다.<sup>9)</sup> <그림 1>과 <그림 2>는 1890년대 런던의 백화점에서 판매되었던 의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기능적인 의상임과 동시에 과거의 복식에서 디



<그림 1>  
Tea Gown, 1897



<그림 2>  
Tea Gown, 1890년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심미적인 의상으로 널리 유행하였다.<sup>10)11)</sup> 즉 영국의 패션은 매우 앞서나가면서도 그 뿌리는 그들의 전통에 두고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 영국패션이 갖게 된 이중구조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셋째는 비교적 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현상으로 체계적이고 훌륭한 영국패션교육과 취약한 패션산업의 허부구조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영국패션은 1950년대 중반 경제적인 부흥과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패션으로 탈바꿈했다. 킹스 로드(King's Road)와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를 중심으로 메리 쿼트(Mary Quant), 리 벤더(Lee Bender), 제프 뱅크스(Jeff Banks),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 등의 젊고 트렌디한 경향의 디자이너들이 부티크를 열어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디자인은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디자이너들은 주로 아트스쿨에서 패션교육을 받았으며 전통을 거부하고 인습파괴적인 디자인을 주로 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위축된 런던의 고급 쿠틀리에 솜들은 특권층들을 위한 매우 특별한 컬렉션을 열거나 미국시장을 겨냥하여 해외로 진출하였다.

결국 1955년에서 1966년 사이에 영국의 패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으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하나는 영국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고급스러운 테일러드 정장과 화려한 이브닝 웨어만을 생산하는 쿠틀리에 디자이너 그룹과 다른 하나는 아트스쿨에서 패션교육을 받은 보다 자유스러운 디자인 정신으로 의상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후자의 그룹은 정부와 산업체의 미약한 지원과, 재벌그룹의 무관심으로 인해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 하에서 창작활동을 하게되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트스쿨에서 체계적이고도 창의적인 패션교육을 받은 신예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취약한 영국의 패션산업의 구조 때문에 눈을 영국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파리, 밀라노, 뉴욕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영국의 패션이 재도약 할 기틀을 마련했다. 마침내 1980년대 초엽,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조지나 고드리(Georgina Godley), 스콧 크롤라(Scott Crolla) 등이 중심이 되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컬렉션을 선보임으

로써, 1983년 영국패션협회(British Fashion Council)가 결성되었고 영국의 패션은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지도하에 전통과 현대, 전통과 아방가르드를 아우르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지극히 전통적인 체크무늬의 버버리 코트와 극단적으로 아방가르드한 핑크패션이 공존하고 편안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영국패션의 이중구조를 정신분열적 이중구조(schizophrenic cloché) 혹은 이중의 정체성(dual identity)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2 영국의 패션교육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국의 패션교육은 아트스쿨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 뿌리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기술교육이 산업체 혹은 트레이드 스쿨(trade school) 내에서 행해지던 것에서 기인한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확산과 더불어 각 지방의 기술인력공급을 위해 전 영국에 트레이드 스쿨이 설립되었다. 특히 의상 제작과 같은 기술교육은 런던 중심가(West End의 Barrett Street)에 1915년 설립된 의상기술학교(Technical School of Dressmaking)<sup>13)</sup>에서 주로 행해졌다. 이 학교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급의상제작을 위한 주·야간 과정을 교육했다.

1930년대에는 의상제작 관련 교육코스들이 아트스쿨 내에 신설되었는데 이때에는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보다는 단순 의상제작능력에 치중하여 교육하였다.<sup>14)</sup> 단순기술교육이 창의적인 디자인 교육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39년에 보고된 "Design and the Designer in the Dress Trade"라는 보고서 때문이었다. 이 보고서는 예술산업협회(Council for Art and Industry)의 위임 하에 실시되었고 1945년에 출간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영국의 디자이너들은 파리의 패션을 모방하거나 변형하기만 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15)</sup> 실질적으로 당시의 아트스쿨 출신의 디자이너들은 산업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국 내의 아트스쿨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단순기술교육이거나 순수예술지향적 혹은 수공예적 교

육으로,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현대적인 의미의 디자이너라기 보다는 기술자 혹은 수공예가를 배출하는 교육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패션교육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유리엘 펴버튼(Muriel Pemberton)이라는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펴버튼은 패션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자각한 인물로서 성 마틴예술학교(지금의 Central S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야간 패션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이 전 영국으로 확산되면서 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 내에는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거의 모든 예술학교에 패션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배출하게 되었다. 특히 1948년 영국 보그의 편집장이었던 매쥬 가랜드(Madge Garland)는 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 내에 있었던 드레스 코스를 패션디자인과로 개설하여 영국의 패션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현재 영국의 패션교육은 한국의 것에 비해 매우 세분화 되어있다. 한국의 의상과, 의상디자인과, 의류학과, 의류직물학과 등의 의류, 의상계열학과에서는 학과 단위 혹은 학부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여 전공별 세분이 없이 4년 동안 전반적인 패션교육을 받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대학의 전 단계인 파운데이션 코스(1년 과정)를 제외하고는 전공별로 세분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3년 과정)을 하므로 보다 심도 있게 주 전공을 가르치게 된다. 학생입장에서도 1년 동안의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패션분야를 확실히 결정하여 대학에 입학하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주 전공을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라면 3년의 대학과정만으로 인턴ship 과정까지 마친 훌륭한 전문가가 배출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3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창의력을 시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3년 후에는 산업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디자이너가 된다.

또한 영국의 패션디자인과의 교수요원은 소수가 배치되는 대신에 현장의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강사로 투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계와 학계의 벽이 거의 없어 재학생들이 업계와 학계를 쉽게 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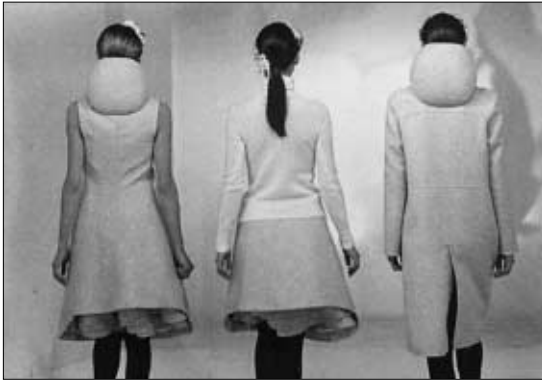
들면서 양쪽의 장점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언제든지 재교육-야간코스 혹은 사회교육코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패션스쿨과 업계는 산학협동의 모범이 되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정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패션교육이 행해짐으로써 훌륭한 디자이너를 배출하게 되었고 이것은 또 다시 영국의 패션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피드백(feed back)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결과 양질의 패션교육을 누구나 값싸게 받게되었고 신분의 고하, 경제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아트스쿨 내의 패션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런던 택시기사의 아들인 알렉산더 맥퀸이나 터키 키프로스 출신의 후세인 살라얀, 존 갈리아노 등이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 훌륭한 영국 패션교육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 분석

런던의 패션 철학자, 미래주의 디자이너 혹은 패션계의 모더니스트이자 실험가로 불리우는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1970~ )은 터키 키프로스 출신의 디자이너로,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을 배출한 성 마틴예술학교의 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하였다. 1993년의 졸업작품쇼에 발표된 그의 의상들이 조안 번스타인(Joan Burstein)의 눈에 띄어 런던의 유명한 패션매장 브라운(Browns)의 쇼 윈도우에 전시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자신의 브랜드를 착수하였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불과 6년여 동안 그는 10여 회의 컬렉션을 발표하였고 매 컬렉션마다 언론계의 찬사를 받아왔다. '99'00 F/W 런던 컬렉션에서는 피날레를 장식하여 호평을 받았고 1999년에는 'British Designer of the Year' 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TSE New York의 콘설팅 디자이너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 '99-00 F/W collection www.firstview.com

### 1. 아이디어의 진화(Evolution of Ideas)

미래주의 디자인(futuristic design)은 살라얀의 의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우주비행사의 복장에서 볼 수 있음직한 베개, 팔걸이, 안테나, 자기장이 퍼져나가는 듯한 프린트, 기후를 상징하는 프린트, 전선이 연결되면 부푸는 스커트, 리모콘으로 작동되는 스커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미래적인 디자인 요소가 의상에 사용된 것은 살라얀의 특별한 아이디어 전개법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는 자신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아이디어의 진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sup>16)</sup> 간단한 베개를 보고 "이것을 의상에 부착한다면?" 하고 생각하거나 "기후를 프린트 무늬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착상에서 사고를 발전시킨 결과 의상의 네크라인에 부착된 베개모양의 장식이 디자인되고 기후를 연상시키는 프린트 무늬가 디자인되며 붕대가 헤어밴드로 변화된다.(그림 3, 4 참조) 어떤 하나의 사고에서 느낌을 창출하고 이 창출된 느낌이 상상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지를 쳐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것을 살라얀은 '아이디어의 진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레이 카와쿠보와 알렉산더 맥퀸도 살라얀의 이러한 발상법을 "미학적으로 도전적인 정신(aesthetically challenging mind)"이라고 표현하며 높게 평가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아이디어의 전개방법은 살라얀의 매우 초기



<그림 4>  
'99 S/S collection  
www.firstview.com

작품에서부터 보여진다. 1993년 성 마틴예술학교의 졸업작품 무대에 올려진 그의 의상들은 녹을 잔뜩 입힌 종이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전통적인 옷의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는 녹슨 효과를 위해 쇠가루와 함께 종이를 자신의 집 뒷마당에 묻어두었다가 이 소재로 의상을 제작하였는데, 이 무대를 위해 모델들은 미리 파사품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이후에도 종이를 소재로 한 시도는 '95 S/S, '95-96 F/W, '96 S/S 컬렉션 등에서 계속되었고, '99 S/S 컬렉션(그림 14 참조)에서는 부직포(Tyvek)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기에 사실적인 꽃무늬(그림 5 참조) 혹은 자기장 무늬(그림 6 참조)를 부가함으로써 전통적인 요소와 동시에 미래적인 요소를 사용하였다. 아마도 그는 미래에는 세탁 가능한 종이의상이 일반화 될 것으로 예견한 것 같다.

'97-98 F/W 컬렉션에서는 아이디어의 전개방법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진다. 컬렉션의 주제는 "Scent of Tempest"로서 살라얀은 기후를 연상시키는 무늬로 전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살라얀은 준비과정에 대해 다음

주) 타이백(Tyvek)은 미국 듀폰사의 부직포 상품명이다.



〈그림 5〉 '95 S/S collection, Collections, P. 354



〈그림 6〉 '95-96 F/W collection, Collections, P. 342



〈그림 7〉 '97-98 F/W collection, Collections, P. 353



〈그림 8〉 '00 S/S collection, Fashion News Vol 57, P. 125

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컬렉션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겪었다. 일단 하나의 사고를 갖고, 이 사고주변에서 어떤 느낌을 창출해 내어 이 느낌에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파생되게 한다. 결국 이 아이디어들은 상징이 되고 이 상징들은 무늬로 프린트되어 컬렉션을 꾸미게 되었다.”<sup>18)</sup> 〈그림 7〉은 '97-98 F/W 컬렉션에 발표된 기후를 상징하는 무늬를 프린트한 의상들로서 마치 자기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컬렉션의 상징적인 의미는 관중들에게 거의 무의식차원에서 전달되었고, 쇼를 볼 당시에는 무언가 복잡한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의상들에 불과하였다.<sup>19)</sup> 쇼 이후 각 언론계에서는 컬렉션의 의미를 보도하였고 관중들은 이때에야 컬렉션이 기후를 상징화한 무늬로 꾸며졌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그림 8〉에 제시된 2000 S/S 'Geotropics' 컬렉션에 선보인 리모콘(remote control)으로 작동되는 스커트는 예기치 못했던 소재와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살라얀의 미래주의 패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리모콘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생활의 기기(利器)

지만 이것이 의상과 접목되라고는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살라얀은 이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미래패션을 예견하고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2000-01 F/W 런던 컬렉션의 피날레를 장식한 무대로, 거실처럼 꾸며진 무대의 소파커버가 원피스로, 테이블이 스커트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상치 못했던 사물이 옷으로 변화하는 이 무대는 전세계 언론계의 찬사를 받았다. 이 역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의 독특한 사고과정을 거쳐 놀랍고도 흥미로운 의상으로 완성된 것이다.

## 2. 해체주의 디자인(Deconstructed Design)

살라얀은 보통 컬렉션 전에 쇼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정리된 한 권의 작은 책자를 관객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이것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그의 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는 패션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옷에 관심이 있고 옷보다는 신체와 옷과의 관계에



<그림 9> '00-01 F/W collection Fashion News, Vol 61, P. 126



<그림 10> '00-01 F/W collection, www.firstview.com



<그림 11> '98 S/S collection, www.firstview.com

더 관심이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의상담당 큐레이터인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세인 살라얀은 카와쿠보 레이(Rei Kawakubo)를 제외한 다른 어느 디자이너 보다 옷을 예술로 다룸으로써 인체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데 사용한다.”<sup>20)</sup> 이것은 또 다른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 중 하나인 해체주의 디자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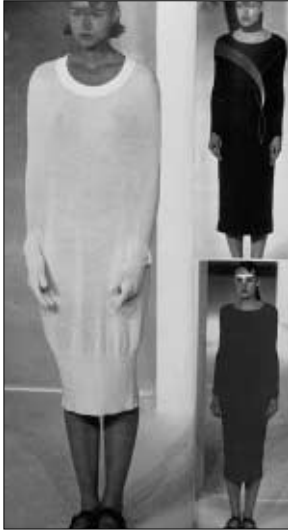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란 구조주의(Structualism)에 대한 반발로 60년대 후반 확산된 문화양식 중 하나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sup>21)</sup>에서 파생되었다. 패션에 있어서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1989년 'Details' 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Infra Apparel”전의 카탈로그 저자 리처드 마틴과 해롤드 코다(Harold Koda)는 복식에 있어서 해체(deconstruction)는 응집성 있는 전체 즉, 전존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 안에서 반대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인공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써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해체주의 복식이란 성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sup>22)</sup>

미니멀하지만 허전하지 않고 모던하지만 꾸미지 않은 살라얀의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아이디어의 원천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살라얀은 “나는 건축, 과학, 자연조건 등이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인체의 역할을 관찰하고, 이러

한 접근이 어떻게 옷에 적용되는 가를 연구한다.”<sup>23)</sup>고 말한다. 이는 '98 S/S “Between” 컬렉션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이 컬렉션에서 살라얀의 해체는 단순히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체, 문화, 우주 등을 해체해서 재결합하는 그의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그림 11>은 '98 S/S 컬렉션에 발표된 의상으로, 상반신은 이슬람의 케이프를 두른 극단적인 정숙함과 하반신은 체모까지 드러낸 누드와의 결합은 놀라움 이전에 충격으로 다가온다. 또한 <그림 12>는 같은 컬렉션에 발표된 의상으로 극단적으로 인체를 구속하고 있다. 이는 박현신이 언급한 해체주의의 유형중 하나인 인체의 부재화 및 부속화 현상<sup>24)</sup>과 일치한다. 옷과 인체의 관습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인체를 옷을 위한 구조물로 전락시키고 조각과 같은 형태로 만들며 옷에 대한 열린 사고 -옷과 인체는 동등하다는 맥락 하에서 디자인 된 의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디자인은 <그림 13>의 '97 S/S “Lands Without” 컬렉션에서도 보여진다.

김혜영은 이를 ‘탈구조적 공간’이라고 부르는데<sup>25)</sup> 살라얀에게 있어서 탈구조적 공간은 보디스에 부착된 소매, 햄라인이 달려진 원피스, 어깨선이 어긋난 원피스, 지나치게 깊게 파인 암홀 등에서 나타나며, 이 공간은 편안함을 불편함으로 심미성과 장식성을 비정형





<그림 12> '98 S/S collection Collections, P. 342



<그림 13> '97 S/S collection, Collections P. 338



<그림 14> '99 S/S Collection, Gap trend Visual map, p. 29



<그림 15> '98 S/S collection, Collections, P.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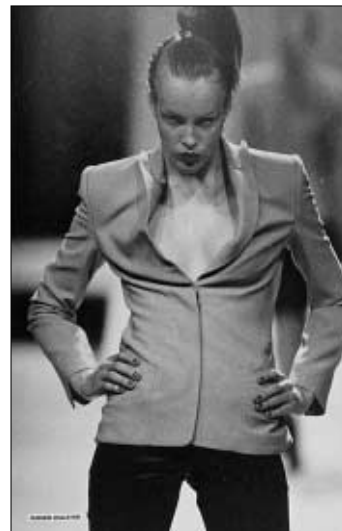
성으로 바꿈으로써 옷과 인체를 해체하여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재구성한 것이다.(그림 14, 15 참조)

### 3. 완벽한 테일러링(Perfect Tailoring)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디자인 특성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국 디자이너 특유의 완벽한 테일러링 기술이 있었다. 실루엣을 해체시키고 이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복잡한 테일러링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 때 기인한다. 존 갈리아노는 토미 너터(Tommy Nutter)의 테일러 숍에서, 알렉산더 맥퀸은 앤더슨 앤 셰파드(Anderson & Sheppard)의 테일러 숍에서 견습과정을 거친 것처럼 살라야노 티모시 에베레스트(Timothy Everest)의 테일러 숍에서 테일러링의 기초를 다졌다. 런던 동서부(West East)의 세비로(Savile Row)에 모여 있는 유명한 테일러 숍들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수공예적인 수준의 테일러링 기법을 자랑한다. 여성복 디자이너인 이들이 세비로를 거쳐 간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미래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단과 봉제방법으로 기

초를 다지고자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앞서 영국패션의 이중구조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 패션은 그 뿌리를 전통에 두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전통을 먼저 잘 알아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림 16>은 '96-97 F/W 콜



<그림 16> '96-97 collection Collezioni, No. 53, P. 137

렉션에 발표된 테일러드 재킷으로, 날렵한 어깨선과 뾰족한 칼라는 알렉산더 맥퀸의 재킷을 연상시킬 정도로 훌륭한 테일러링 기술을 보여준다.

언론에서는 말하기를 '살라얀은 과거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는 유일한 영국 디자이너'라고 한다.<sup>26)</sup>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알렉산더 맥퀸이나 존 갈리아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an Westwood)와 같은 복식사적인 디자인 요소가 눈에 띄지 않지만, 그의 정확하고 예리한 테일러링 기술은 분명 영국적인 전통에 영향 받은 바 크다고 보여진다. 즉, 영국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최첨단 디자인을 전개시킨 점은 살라얀 역시 영국 패션의 이중구조의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의상과 접목시킬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주는 영국의 패션교육과 전통에 뿌리를 둔 영국 고유의 테일러링 기법의 전수, 디자이너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패션철학은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으로 분석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한국패션산업의 불황타개 방법의 모색을 위해 영국패션의 특성 및 영국 패션에 원동력을 제공한 젊은 디자이너, 후세인 살라얀을 한 예로써 디자인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오늘날 영국의 패션이 세계시장에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아티스쿨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이들이 영국적인 전통을 계승하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 결과는 이미 제1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산학연계가 잘 되어 있는 패션교육의 시스템 하에서 행해진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패션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과,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영국패션의 이중구조 속에서 '영국패션다움'을 창출해냄으로써 여타 국가의 디자이너가 흉내낼 수 없는 영국 디자이너만의 독창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영국패션의 배경 하에서 성장한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 또한 많은 부분에서 영국패션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살라얀의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매 컬렉션마다 주제가 분명하고 그 주제의 기저에는 디자이너의 일관된 패션철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주적인 느낌의 인공위성, 안테나, 자기장 혹은 기후를 연상시키는 프린트, 우주비행선용 베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예기치 못했던 소재와 첨단 기술의 결합은 우주적이면서 미래적인 느낌을 주며, 해체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컷팅선들은 분해적 해체 이면서도 매우 절제되어 있었다. 인체를 구속하는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인체와 무관한 구성선과 영국에서 교육받은 디자이너들의 공통된 특징인 훌륭한 테일러링 기술의 만남은 영국패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살라얀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살라얀 특유의 아이디어의 전개에 의한 미래주의 디자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생활용품 혹은 생활환경을 의상과 접목시킴으로써 한 차원 높은 미래패션을 예견하고 있다.

둘째, 옷 자체뿐만 아니라 옷과 인체의 관계, 옷과 문화의 관계, 인체와 문화의 관계 등을 해체한 후 재해석하고 결합하는 그의 능력은 해체주의에 근거해 있지만, 살라얀 특유의 정돈된 해체주의 의상 혹은 예술로서의 의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옷과 인체는 동등하다'는 그의 디자인 철학이 적용된 것으로, '입는다'는 개념을 거부한 디자인(녹을 입힌 종이소재,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소매, 햄라인이 달려진 원피스, 어깨선이 어긋난 원피스, 지나치게 깊게 파인 암홀 등)에 나타나 있다.

셋째, 테일러링으로 유명한 런던 세비로에서의 견습과정에서 익힌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이 위의 두 가지 특성을 뒷받침함으로써 전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해체된 실루엣의 재구성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번째 특성은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성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줄 수 있는 모든 디자인 작업의 기초가 테일러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세가지 특성이 현재 영국 패션계의 최첨단 디자이너중 한 사람인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

인 특성들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한국의 패션산업과 신세대 디자이너들에게 한국 패션계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1보에 덧붙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부 주도하에서 모든 패션 관련 단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같은 정부조직이 한국내의 모든 크고 작은 패션 관련 단체 및 컬렉션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보다 재빠르게 세계 패션시장의 변화에 대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현재 한국의 패션업계와 학계의 높은 담을 낮추어야 한다. 패션업계에서는 쉽게 재교육을 위해 학계로 들어 올 수 있어야 하고 학계에서는 졸업반 학생들의 패션 현장에서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현장 실습의 기회를 위해 패션업계로 내 보내야 한다. 이의 원활한 교류가 없이는 많은 시간과 인적자원의 낭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계는 교과과정 및 실습의 내용을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산학연계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패션 디자이너 자신이 고등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알렉산더 맥퀸 및 후세인 살라얀의 실례에서 보듯이 자신의 디자인의 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도제적인 실습도 마다하지 않는 젊은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넷째, 패션 디자이너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방대한 독서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고찰,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살라얀의 미래주의 디자인이나 해체주의 디자인은 일상생활이나 환경,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기인한 것임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한국패션의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한국적인 것이고 한국 패션의 특징이 어떤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결시킬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 한국 패션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 학계, 패션업계, 그리고 무엇보다 패션 디자이너 자신의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패션의 특징과 비즈니스와의 연계방안을 다루어 봄으로써 한국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Haye, Amy De La ed., The Cutting Edge -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V&A Publications, 1997, P. 30.
- 2) 배수정, 英國 패션의 原動力에 關한 研究 I,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Vol 2, No 2-3, 1998.
- 3) Nikolaus Pevsner, The Englishness of English Art, Penguin Books, 1997, P. 15-25.
- 4) W. D. Rubenstein, Past and Present, 1977, P. 76.
- 5) 런던의 Victoria & Albert(약칭 V & A) Museum은 매우 큰 의상 전시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15세기 의상에서부터 현재의 디자이너 의상, 소품, 악세서리까지 시대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많은 패션 연구자들, 학생들과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얻는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 6) Amy de la Haye ed., 1997, P. 12.
- 7)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는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의 기계부정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산업혁명과 1800년대 이래 시작된 미학의 학설이 부정적으로 크게 작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양적으로 커다란 발전은 이루었으나,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외관은 예술성이 결여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균질화 현상이 나타났다.
- 8) 윌리엄 모리스는 불완전한 의상은 아름다울 수

- 없으며, 의상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 드레이퍼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리스는 이러한 모드와 미의 이상을 드레이퍼리가 많이 잡힌 의상에서 구현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만들어 주었다. 에리카 킬 저, 양숙희 편역, 복식과 예술, 교학연구사, 1997, P. 83-85.
- 9) 화가들은 예술적인 관점에서 의상개혁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의사와 사회개혁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학적·보건 의학적 이유에서 당시의 기존의상을 반대하였다. 이들의 투쟁대상은 여성의상이었으며, 특히 여성의 허리를 극심하게 조이는 코르셋을 폐기하고자 했다. 에리카 킬 저, 양숙희 편역, 1997, P. 81.
- 10) Natalie Rothstein ed,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V & A Publication, 1984, P. 142.
- 11) Jane Ashelford, The Art of Dress: Clothes and Society, Brams, 1996, P. 242.
- 12) Amy de la Haye ed., 1997, P. 7.
- 13) 현재도 의상기술학교의 건물은 LCF(London College of Fashion)의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
- 14) Amy de la Haye, ed. 1997, P. 18-19.
- 15) Council for Art and Industry, 1945, P. 7.
- 16) The Fashion Book, Phaidon, 1998, P. 96-97.
- 17) www.ELLE.com-Fashion-Designers Bios-Hussein Chalayan
- 18) Stephen Gan, Visionaire's Fashion 2000, Universe, 1997, P. 20-21.
- 19) Andrew Tucker, The London Fashion Book, Rizzoli, 1998, P. 112.
- 20) Andrew Tucker, 1998, P. 113.
- 21) 포스트모더니즘은 17, 18세기의 계몽주의에 의해 배태된 근대성(modernity)이 2차세계대전 이후 부상한 후기 자본주의의 양식과 밀접히 연결되어 나타난 새로운 문화양식으로서, 특수한 사회적 체계의 논리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세계에 대한 해체되고(deconstructed), 분산되고(fragmented), 찢나적인(freeting), 표상(representation)의 양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학자들 간에 의견이 공통된다. 김주영,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Vol. 21, No. 8, 1997, P. 1262.
- 22) 김주영, 양숙희, 1997, P. 1265-66.
- 23) Andrew Tucker, 1998, P. 112.
- 24) 박현신, 카오스·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1998, P. 187-9.
- 25) 김혜영,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호, 2000, P. 10-11.
- 26) www.ELLE.com-fashion-Designers Bios-Hussein Chalayan